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 板本考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Liudao Pushuo*, One of Mengshan De-yi's Works

송 일 기(II-Gie Song)*

김 은 진(Eun-Ji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2 간행 현황 |
| 2. 몽산 덕이의 생애와 저술 | 4. 『육도보설』의 판본 분석 |
| 2.1 생애 | 4.1 형태 분석 |
| 2.2 저술 | 4.2 계통 분석 |
| 3. 『육도보설』의 편찬 및 간행 | 4.3 시기 및 지역 분석 |
| 3.1 편찬 배경 | 5.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중국의 송·원대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岐派)의 승려인 몽산(蒙山) 덕이(德異)의 저술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의 간행 현황을 파악하고 현존(現存) 판본을 분석한 것이다. 『육도보설』은 현재 중국에는 없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입장에서 육도(六道)와 사성(四聖)을 더한 십계(十界)를 내용으로 한 설법집이다. 조사 결과 전국 주요 사찰에서 개판된 판본은 모두 22종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2종을 대상으로 형태 분석과 행자수를 바탕으로 계통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절첩장본을 제외하고 모두 시주단본, 10종은 흑구와 내향흑어미가 쌍으로 나타나는 조선 전기의 전형적인 판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계통 분석에서는 13자본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시기 및 지역 분석에서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전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조선시대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활발히 간행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몽산의 선사상이 우리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printed books of *Liudao Pushuo*(六道普說), one of Mengshan(蒙山)'s works. Mengshan De-yi(德異) lived in the Song(宋) and Yuan(元) Dynasty and was a Buddhist monk of *Linji Chan*(臨濟宗). *Liudao Pushuo* exists only in Korea, and there is no copy in China. *Liudao Pushuo* is a summary of the preachings of Mengshan about *the Ten dharma-worlds*(十法界) which include *the six realms*(六道) and *the four kinds of holy men*(四聖). There are 22 printed books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ir physical descriptions and structures. As a result, all the printed books have 'sajudanbyoun(四周單邊)' except one book that is 'julchopjang(折帖裝)' of 'Bulgapsa(佛甲寺)'. There are also ten books with 'Heukku(黑口) and naehyang heukumi(內向黑魚尾)'. This indicates that those were typical of the printing type of the early days of the Joseon(朝鮮) Dynasty. In addition, the books with 13 characters in one line(13字本) were common. All 22 printed books were published in the 15th and 16th century. This study confirms that *Liudao Pushuo* was handed down in the Goryeo(高麗) from China and actively published in the 15th and 16th century. This shows that Mengshan's *Seon*(禪)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uddhism in Korea.

키워드: 몽산, 덕이, 육도보설, 보설, 사찰본

Mengshan, De-yi, *Liudao Pushuo*, *Pushuo*, Publications of Temple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BK연구원(kejtony@naver.com)

논문접수일자: 2011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7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8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07-233, 201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3.207]

1. 서론

이 연구는 송(宋)·원대(元代) 승려, 몽산(蒙山) 덕이(德異)의 저술(著述)인 『몽산화상 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이하 『육도보설』)으로 약칭)의 현존(現存) 판본(板本)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현재 몽산의 여러 저술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 몽산 덕이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사이에 우리나라 불교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몽산의 저술 중 『육도보설』은 중국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으며, 유독 우리나라에만 유통되고 있는 몽산의 대표 저술이다.

이 책은 몽산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입장에서 중생들에게 육도(六道)인 지옥도(地獄道),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도(人間道), 천상도(天上道)와 사성(四聖) 즉 성문(聖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불(佛)을 더한 십계(十界)를 설한 것으로 사범입성(捨凡入聖)을 권하고 있는 설법집이다.

현재 몽산에 관한 연구는 불교학을 비롯하여 역사학 분야, 그의 저술에 대한 서지학 및 국어학 분야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역사학 분야의 연구는 불교사적 연구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몽산 덕이란 인물과 고려와 조선 초기 불교의 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불교사 분야에서는 한기두(1985), 민영규(1989), 인경(2009), 김방룡(2005), 조명제(2005), 서윤길(1994) 등의 연구가 있는데, 고려말(高麗末) 몽산 선풍(旋風)의 전개와 양상, 고려 선종(禪宗)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허홍식은 몽산 덕이란 인물의 생애와 저

술, 고려와의 관계(2008), 고려 불교사(1994) 등 몽산 덕이와 고려 불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남겼으며, 최연식과 강호선은 몽산의 행적과 저술, 고려말 불교계에 대한 연구(2003)를 진행하였다. 또한 진성규는 몽산과 서신(書信)을 주고 받았던 이승휴(李承休)에 대한 연구가 있다(2005). 그 밖에 몽산 저술 간행을 통한 조선시대의 불교사에 대한 연구로 정병삼(2007), 이원숙(2009), 손성필(2007)의 연구가 있고, 언해본을 대상으로 국어학 분야의 연구로 정은영의 『육도보설』 이본의 입결 연구(2005)가 보이고 있다.

한편 몽산 저술에 관한 서지학 분야 연구는 남권희의 『육도보설』 언해본(1999)과 『제경촬요(諸經撮要)』를 중심으로 한 몽산과 고려인들과의 교류를 고찰한 연구(1994)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몽산 덕이란 인물과 그의 저술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할 수 있었고 연구 행태는 종교사, 역사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행적과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저술이 핵심이라고 본다. 그의 저술이 우리나라에서 간행, 유통된 자취를 찾아내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불교 서적사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몽산 덕이라는 인물과 우리나라 불교사의 관계, 그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새롭게 발굴된 그의 많은 저술들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와 함께 그것의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몽산 덕이의 대표적 저술인 『육도보설』이 조선 전기에 간행

되어 우리나라에 널리 유통된 판본을 조사하고 이들 판본이 지니고 있는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며, 또한 이들 판본은 어떠한 계통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기 및 지역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 측면의 간행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를 통해 몽산 덕이가 찬술한 『육도보설』이 우리 불교계에 끼친 영향의 일단을 판본 유통 현상에서 찾고자 한다.

2. 몽산 덕이의 생애와 저술

2.1 생애

몽산 덕이는 13세기 남송 시대에 태어난 인물로 몽산(蒙山)은 호(號)이고 덕이(德異)는 법명(法名)이다. 당시 남송은 몽고의 침략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고 몽산은 이러한 몽고 침략의 어려움 속에서 생애의 반 이상을 보낸 송·원대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岐派)의 고승이다. 몽산의 출생연대는 정확히 기록되어 알려지지 않았으며 1231년 즈음으로 사전에 올라있을 뿐이고 몰년은 기록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단지 1297년 그가 고려 이승휴에게 보낸 법어가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실려 있어 이것으로 그가 68세까지 생존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¹⁾

몽산은 서양(瑞陽) 고안(高安)에서 아버지 노정달(盧正達), 어머니 추씨(鄒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기서 고안은 오늘날 강서성(江西

省)에 속한 여능도(廬陵道)의 서양(瑞陽) 혹은 시양(時(示)陽)의 고안현(高安縣)을 말한다. 몽산화상(蒙山和尚)의 몽산은 바로 이 여능도의 산 이름이다. 또한 서양은 당(唐)의 균주(筠州)로 몽산의 다른 호인 고균(古筠) 또한 여기서 유래하여 사용되어진 것으로 몽산, 고균은 출가 직후부터 사용된 호이다. 그 밖의 그가 득도한 송강부(松江府)의 산 이름에서 유래한 전산(澗山), 말년에는 전산을 떠나 그가 머물던 암자인 휴휴암(休休庵)에서 유래한 휴휴암주(休休庵主), 수도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의 절목수(絶牧手)란 자호(自號)를 사용하였다.

몽산이 14세 때 한 스님이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읽는 소리를 듣고 대신주(大神呪)의 뜻을 물으니 스님은 동산(洞山)의 죽암인(竹巖印)을 소개한다. 그러나 죽암인의 기다리라는 말에 몽산은 돌아오게 된다. 16세에 외숙(外叔)이 벼슬하는 형양(荊襄)에서 관례를 마쳤고, 20세가 되어서는 불교에 관심을 갖고 불교서에 몰두 하였다. 그는 학문을 좋아하고 종교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도교와 불교 경전을 섭렵하기에 이른다. 몽산 덕이의 출생, 성장 과정 속에서 그가 불교와의 인연이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32세에 17, 8명의 장로를 만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물었으나 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민(閩)에 들어가 환산정응선사(院山正凝禪師)를 만나 무자화두(無字話頭)를 받고 열심히 탐구 하였고 그를 떠나 서너분의 고승을 만났으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 후로 2년을 보낸다. 몽산은 2년 뒤인 34세, 경정

1) 李承休, 『動安居士集』 『雜著』 〈上蒙山和尚謝賜法語〉 〈和尚所寄法語〉. “古今無二道...大德元年丁酉歲四月十二日書于中吳休休禪庵蒙山德異.”

(景定) 5년(1264년) 6월에 사천(泗川) 중경(重慶)에서 이질(痢疾)로 고생하였는데 이 때 병이 나으면 출가하기로 맹세한다. 그 후 병이 낫자 8월 중경에서 삼협(三峽)을 지나 동쪽에 위치한 강릉(江陵) 이성원(二聖院)에서 출가한다. 출가 후 승천사(承天寺)의 고섭여영(孤蟾如瑩), 천령사(天寧寺)의 설암조흠(雪巖祖欽), 사계사(四溪寺)의 석림행공(石林行鞏), 정자선사(淨慈禪寺)의 석범유연(石帆惟衍), 경산사(徑山寺)의 허당지우(虛堂智愚) 등 여러 사원의 승려들을 찾아가 법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몽산은 허당지우의 권유에 따라 환산정응을 찾아갔고 거기서 깊은 수도의 경지에 이르고 그의 법맥을 이었다.

몽산은 말년에 이르러 청량사(淸涼寺)의 주지를 맡으라는 원(元)의 회유를 사양하고 소헌(素軒) 채공(蔡公)이 마련한 휴휴암에 머물면서 저술과 교화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된다. 절목수라는 그의 자호만 보더라도 은둔하여 수도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의 굳은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휴휴암에 머무르던 시절 고려의 고급 관인, 공주, 고승들과 교류하였으며(남권희 1994), 이 과정에서 그의 저술이 고려로 전해지게 된다. 또한 그의 제자 철산소경(鐵山紹瓊)은 고려 승려들과 교류하며 고려를 방문하고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몽산 선풍의 영향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대했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는 국내에 간행된 중국 선사의 어록(語錄) 중 몽산의 것이 가장 많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김방룡 2005, 221).

2.2 저술

몽산과 불교의 인연은 14세 때 스님의 『반야심경』 읽는 소리를 듣고 대신주의 뜻을 물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성장하여 32세에 출가하기 전까지 다양한 지식인들과 교류하였고 학문을 좋아하여 유교, 도교, 불교를 섭렵하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그의 성장 배경은 말년(末年) 그가 간행한 많은 저술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몽산은 선종(禪宗) 5가(家)의 하나인 임제종 양기파의 고승으로 알려져 있다. 수당시대(隋唐時代)에 흥기(興起)한 불교 여러 종파의 상황을 보면, 당말(唐末) 이후의 불교는 거의 선종에 의하여 독점(獨占)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선종은 임제종(臨濟宗), 위양종(滙仰宗), 조동종(曹洞宗), 운문종(雲門宗), 법안종(法眼宗) 등의 5가로 나뉘어져 발전하였고 임제종은 선종 중에서도 크게 활약한 종파이다. 임제종의 종조(宗祖)는 의현(義玄)이며 존장(存獎), 혜옹(慧顒), 연소(延沼)로 이어지고 송초(宋初)에 이르러서 성념(省念), 선소(善昭), 초원(楚圓)으로 이어진다. 그 아래 황용(黃龍) 혜남(慧南)(1002~1069)과 양기(楊岐) 방회(方會)(992~1049)가 출세하여 각기 황용파(黃龍派)와 양기파(楊岐派)를 수립한다. 선종은 이 두 종파를 앞의 5가와 합하여 5가(家)7종(宗)이라고 한다(장원규 1976, 204-206).

몽산은 출가 후 스승을 찾아 여러 절을 돌아다녔고 복관사(復觀寺)에서 복암묘우(福庵妙祐)에게 찬문을 남겼고, 34세에는 절강의 승천

사(承天寺) 고섬여영(孤蟾如瑩)을 찾았다. 36세인 1266년에는 입안 천령사(天寧寺)의 설암조흠(雪庵祖欽), 사계사(思溪寺)의 석림행공(石林行翬), 정자선사(淨慈禪寺)의 석범유연(石帆惟衍) 등에 입실하였다. 이어 경산사(徑山寺)의 허당지우(虛堂智愚)를 만나 공안(公案)을 통한 문답을 교환하였다. 허당의 권유로 몽산은 환산정응(皖山正凝)을 다시 찾아가 문답을 벌이고 37세가 되는 봄에 대오(大悟)하여 임제의 경절(徑截) 가풍을 계승한다. 그리고 철산소경(鐵山紹瓊)은 몽산의 수제자로 그의 뒤를 잇게 된다. 몽산이 만났던 선승들은 조동종(曹洞宗)의 고섬 여영을 제외하고 모두 임제종 양기파의 호구파(虎丘派)에 속하였다. 남송대 금(金)파의 대립에서 양기파의 대혜파(大慧派)는 주류를 이루었지만 호구파는 현실 참여적 경향이 약하였고 호구파 중에서도 정치적 경향이 강한 부류와 약한 부류가 있었는데 환산의 법을 이은 몽산은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다(정병삼 2007, 128).

이러한 몽산의 사상적 경향은 그의 저술에서 확연하게 들어난다. 몽산의 저술은 그의 어록을 핵심만으로 요약한 약록인 『법어약록(法語略錄)』, 가장 널리 유통된 『육도보설』, 『육도보설』과 함께 실천적 교화용으로써 간행된 『증수선교시식의문(增修禪教施食儀文)』이 있다. 또한 도덕경을 불교와 유교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삼교일치(三教一致)를 강조하고 있는 『직주도덕경(直註道德經)』, 유교와 불교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사설(四說)』, 마지막으로 몽산의 서문이 있는 몽산본(蒙山本) 『육조단경(六祖壇經)』 등으로 6가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법어약록』, 『육도보설』, 『증수선교시식

의문』은 교화용 저술로써 민중들에게 힘든 전란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믿음을 주고자 하였다. 삶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음식과 불교의 시식(施食)을 연결하여 사회를 구휼하고 이러한 의식을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 『법어약록』은 신미(信眉)가 번역한 언해본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선 세조 때 간행되었고 중종 때 중간(重刊)하였다.

몽산이 중요하게 여겼던 삼교일치(三教一致) 사상은 그가 출가 전 여러 학문을 포섭하여 공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된 저술로는 『직주도덕경』과 『사설』이 있다. 『직주도덕경』은 남송말 사상적 갈등 속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노자의 도덕경을 불교와 유교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다. 서문에는 휴휴암에 머물기 전에 만났던 유자(儒者)들의 불교와 도교에 대한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 저술하였다는 그의 의도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 『직주도덕경』은 조선 건국 후 불교와 도교에 대한 탄압 속에서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행되었을 것이다. 『사설』은 주역의 역설, 서경의 황극, 예기의 중용을 불교적 입장에서 풀이한 삼설(三說)이 바탕을 이루고 여기에 교학과 선이 일치한다는 ‘무피차설(無彼此說)’을 합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리고 『육조단경』은 조계종(曹溪宗)의 조사(祖師)인 육조혜능(六祖慧能)의 어록이면서 전기이다. 이는 제자 법해(法海)가 그의 전기와 언행을 내용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선종의 우위가 확립된 후대에 경이란 호칭을 얻었다(허홍식 2008, 138). 몽산본 『육조단경』은 최후에 확정된 단경이고 고려와 조선에만 유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허

홍식 2008, 139). 그리고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서 3차에 걸쳐 간행된 『불조삼경(佛祖三經)』이 보이고 있는데(송일기 2010, 6-13), 이 책에도 그가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필사본 형태의 자료로써 『몽산행실기(蒙山行實記)』를 비롯하여 『제경촬요』와 『법문경치(法門景致)』가 함께 발견된 바 있다. 이것은 그의 행적과 그가 남긴 저술들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 자료이다(남권희 1994). 1562년 간행된 『장수멸죄다라니경(長壽滅罪陀羅尼經)』의 끝에는 몽산의 「염불화두법(念佛話頭法)」과 「염불법어(念佛法語)」라는 제목으로 두편의 산문이 필사되어 있다(허홍식 2008, 92-105). 이와 같이 다른 저술들의 일부분에 몽산의 저술이 합쳐져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것은 몽산 저술의 다양성과 방대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몽산의 저술은 고려와의 교류가 시작된 시기인 12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몽산은 말년(末年)에 고려의 고급 관인, 공주, 고승들의 방문을 받았고 간접적 교류로써 고려인들과 서신을 주고 받았다. 『법문경치』는 몽산을 방문한 고려인들을 10송(松)에 비유하여 송(頌)을 남긴 것이다. 요암원명(了庵元明)은 이것의 제(題)를 붙였으며 혼구(混丘)는 몽산이 지어준 무극설(無極說)로 '무극노인(無極老人)'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혜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은 몽산과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몽산이 서문을 남긴 몽산본 『육조단경(六祖壇經)』을 구하여 간행하였다. 그 이후에는 원명국사(圓明國師) 충감(冲鑑)과 몽산의 제자인 철산소경과의 교류가 있었고 이것은 철산소경이 고려에

3년간 머무르는 계기가 되었다. 『증집속전등록(增集續傳燈錄)』에는 철산소경이 고려 출신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산의 사상은 고려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로 전해졌고 고려불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으며 그의 저술이 간행된 행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3. 『육도보설』의 편찬 및 간행

3.1 편찬 배경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육도보설』은 현재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현전하고 있다. 몽산의 『육도보설』에서 보설(普說)은 선종사원에서 집단의 협력,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동원과 교화의 수단인 보청(普請)이 발전한 것으로,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한 내용을 모은 형태이다. 이러한 보설은 불경을 근거로 들어 현실을 선사상(禪思想)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현실성이 담겨있다. 법어(法語)가 높은 수준의 고승에게 설법한 이론을 담은 저술이라면 보설은 승속을 포함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지닌다. 개인적, 소규모적이었던 선종이 불교계를 주도해나감에 따라 대중과 사원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남송에서는 선종 임제종 양기파의 묵조선(默照禪)보다 간화선(看話禪)이 풍미하게 된다. 보설은 바로 이 간화선 풍미화의 결과로 당시의 불교계를 주도한 선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허

흥식 2008, 107).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몽산이 일체유심조의 입장에서 불교 중생들이 업(業)에 따라 윤회(輪廻)하는 육도인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와 해탈한 경지를 의미하는 사성 즉 성문, 연각, 보살, 불을 더한 십계를 설한 것으로 사범입성을 권하고 있다(남권희 1999, 71). 『육도보설』은 몽산이 남긴 모범적 설법집으로 초기 교학(敎學)의 주제였던 전생담이나 화엄사상에서 강조한 연기설을 선종에서 대중의 교화로 활용한 것이다(허흥식 2008, 112). 많은 전란으로 불안한 민중들에게 『육도보설』을 통해 쉽게 다가갈 불교를 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육도보설』은 몽산의 많은 보설(普說) 중 일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경도서관에는 4권 1책으로 구성된 『몽산화상보설(蒙山和尚普說)』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모두 9편의 보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서문과 보설 4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며 뒷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현존 보설 9편 중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보설에 '일월영축진(日月盈戾辰)'이 판심(版心)으로 쓰인 것을 미루어 파악한 것이다. 이는 천자문의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한자로 앞부분에 '천지현황(天地玄荒)'에 해당하는 보설이 있을 것임을 고려한 것이다. 『육도보설』은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몽산화상보설』에 수록된 다른 보설들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설해진 시기(1281년) 역시 다른 보설들이 행해진 시기와 근접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원래의 『몽산화상보설』에는 『육도보설』이 수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되며, 그럴 경우 설해진 연도로 볼 때 현재의 제1권보다 앞의 부분에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최연식, 강호선 2003, 17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육도보설』은 간화선 풍미와 함께 이로써 나타난 선종의 산물로 전란 속에서 민중에게 다가갈 그들을 구휼하고 불교를 전파하고자 설해진 것이다. 『몽산화상보설』이 현재 앞부분과 뒷부분이 현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국내의 『육도보설』과 중국의 9편의 보설을 합한 10편이 몽산의 현전(現傳) 보설로써 같은 시기에 행해지고 책으로 간행되었을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 시대에 전해져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었고 조선 전기까지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것이다.

3.2 간행 현황

몽산의 『육도보설』의 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다양한 서지목록을 조사하고 2차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여러 대학도서관, 사찰을 통해 실물조사를 하였다. 서지목록은 정형우·윤병태의 『韓國冊版目錄摠覽』(정형우, 윤병태 1979, 135), 박상국의 『全國寺刹所藏木板集』(박상국 1987, 472), 흑전량의 『朝鮮舊書考』(흑전량 1972, 32-43, 62-69, 72-72, 80-87)를 기본으로 참고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장서각, 규장각,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의 기관 소장 고서 목록과 개인 고서 목록으로 김민영 소장 고서 목록(송일기 2007), 기타 『古書通信』(한국출판무역 2000) 등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25종의 간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중 오봉사본(五峯寺本), 안국사본(安國寺本), 천관사본(天冠寺本) 3종은 현존 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존본(現存本)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겨진 판본까지 포함하여 전체가 25종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현존하는 『육도보설』의 판본은 모두 22종으로 조사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된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판본이 존재했을 것이며 현존본이 없는 것은 앞으로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 간행되어 현존하는 판본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육도보설』 간행 현황

| No | 간행년 | 간행처 | 간기 | 현존여부 |
|----|--------------------|------|--|------|
| 1 | 15세기 | 刊記 無 | 刊記 無 | ○ |
| 2 | 1432 ²⁾ | 未詳 | 宣德七(六)年五月日□□□□□ ³⁾ 寺刊 | ○ |
| 3 | 1466 | 未詳 | 成化二年丙戌二月日書 | ○ |
| 4 | 1489 | 未詳 | 今貧道性行者不勝感限影板印出以施無窮者弘治己酉夏四月日 | ○ |
| 5 | 1490 | 慈悲嶺寺 | 弘治三年七月日 黃海道瑞眞地慈悲嶺寺開板 | ○ |
| 6 | 1497 | 懸庵 | 弘治十年八月日全羅道鎮安地嶺上山懸庵開板 | ○ |
| 7 | 1509 | 大光寺 | 正德四年己巳九月 日全羅道順天府母後山大光寺刊板 | ○ |
| 8 | 1521 | 上菴 | 正德十七年辛 巳孟春江原道楊口地兜率山上菴開板 | ○ |
| 9 | 1522 | 無量寺 | 嘉靖元年壬午四月日刊板于 忠清道鴻山縣萬壽山無量寺留 | ○ |
| 10 | 1536 | 神興寺 | 嘉靖十五年丙申六月日智異山神興寺開板 | ○ |
| 11 | 1537 | 水月寺 | 嘉靖十六年十月日全羅道興德地道遙山水月寺重刊板 | ○ |
| 12 | 1539 | 廣興寺 | 嘉靖十八年己亥二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 | ○ |
| 13 | 1541 | 釋王寺 | 嘉靖二十年辛丑三月日咸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板 | ○ |
| 14 | 1552 | 五峯寺 | 嘉靖壬子年二月上澣五峯寺開板 | × |
| 15 | 1555 | 廣德寺 | 嘉靖三十四年七月日天安廣德寺開板 | ○ |
| 16 | 1565 | 佛會庵 | 嘉靖四十四年乙丑秋高達山佛會庵開刊 黃海道兎山地板致於鶴鳳山石頭寺留置 | ○ |
| 17 | 1566 | 安心寺 | 嘉靖四十五年丙寅八月日全羅道高山地兜率山安心寺留板 | ○ |
| 18 | 1566 | 安國寺 | 嘉靖四十五年丙寅二月日平安道慈山地安國寺留板 | × |
| 19 | 1567 | 鷲巖寺 | 隆慶元年秋日全羅道淳昌地鷲巖寺 | ○ |
| 20 | 1568 | 法住寺 | 隆慶二年戊辰七月日忠清道報恩地俗離山法住寺開板 | ○ |
| 21 | 1568 | 雙溪寺 | 隆慶二年十二月日忠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 | ○ |
| 22 | 1570 | 雙峰寺 | 隆慶四年庚午夏孟月全羅道綾城地雙峰寺開板 | ○ |
| 23 | 1575 | 金剛寺 | 萬曆三年乙亥十月日全羅道海南地金剛寺開板 | ○ |
| 24 | 1584 | 開心寺 | 萬曆十二年九月日忠清道瑞山地伽倻山開心寺新開板 | ○ |
| 25 | 1640 | 天冠寺 | 大明崇禎十四(三)年庚辰六月日天冠山天冠寺重刊 | × |

2) 간지(干支)가 없고 글자의 일부가 지워져 '六'과 '七'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확정할 수 없으나 서지목록들에 대부분 '七'이라고 판단하고 1432년 자료로 기록하고 있다.
 3) 1432년 판본은 마지막 장의 간행기록의 일부가 지워져 간행지와 간행처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이상 25종의 판본 중 현존하는 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 전남 영광의 불갑사(佛甲寺)에 소장되어 있는데 절첩장(折帖裝) 형태의 판본으로 대략 14-15세기로 보고 있다. 가장 늦은 시기의 판본은 1584년 개심사(開心寺)에서 간행한 것으로 간행 기록 ‘萬曆十二年九月日忠淸道瑞山地伽倻山開心寺新開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25종의 간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존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모두 임진왜란 이전에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 집중적으로 간행, 유통된 것은 불교사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그리고 이중 상당부분이 16세기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산중의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의 혁신을 도모하였으며(손성필 2007), 그 결과 이러한 몽산의 저술이 16세기 조선 불교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도 보이고 있다(정병삼 2007). 또한 조선전기 불교계는 여말삼사로 존숭 받았던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의 문도들에 의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태고보우의 제자 환암혼수(幻庵混修)는 몽산선종을 수용하고 구곡각운(龜谷覺雲)은 임제종의 간화선종을 수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벽계정심(碧溪淨心)일 가능성이 있는 삼여소안도 임제선종을 지녔음이 확인된다(황인규 2004, 50). 따라서 몽산의 대표 저술인 『육도보설』은 주로 조선 전기에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불교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육도보설』의 판본 분석

판본의 특징 분석은 조사결과 현존하는 22종을 대상으로 형태 및 계통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형태 분석은 변란과 판심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계통 분석은 행격(行格) 비교를 통해 자수(字數)를 기준으로 계통을 구분하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기 및 지역 분석을 수행하였다.

4.1 형태 분석

형태 분석은 현존 22종의 변란과 판심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판심은 판본의 후구와 어미를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였고 이를 결과로써 분석하였다.

4.1.1 변란 분석

변란(邊欄)은 책판(冊板)의 네 둘레에 둘러진 검은 선을 일컫는 용어로, 광곽(匡郭) 또는 판광(版匡)이라고도 한다. 변란은 사주단변, 사주쌍변, 좌우쌍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표 2>는 현존 『육도보설』 22종 판본의 변란을 분석한 것이다.

다음의 분석 결과 『육도보설』 현존본 22종은 절첩장 형태의 불갑사 소장본만 상하단변이며 나머지 21종 모두 사주단변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선 초기에 접장본에서 선장본(線裝本)으로 장책(粧冊)이 크게 변화하면서 변란의 형태가 모두 사주단변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현존본 『육도보설』 판본의 변란 분석

| 구분 | 간행연도 | 간행지 | 종수 |
|------|--------|---------|----|
| 상하단변 | 15세기 | 미상 | 1 |
| 사주단변 | 1432 | 미상 | 21 |
| | 1466 | 미상 | |
| | 1489 | 미상 | |
| | 1490 | 서진 자비령사 | |
| | 1497 | 진안 현암 | |
| | 1509 | 순천 대광사 | |
| | 1521 | 양구 상암 | |
| | 1522 | 홍산 무량사 | |
| | 1536 | 하동 신흥사 | |
| | 1537 | 홍덕 수월사 | |
| | 1539 | 안동 광흥사 | |
| | 1541 | 안변 석왕사 | |
| | 1555 | 천안 광덕사 | |
| | 1565 | 여주 불회암 | |
| | 1566 | 고산 안심사 | |
| | 1567 | 순창 취암사 | |
| | 1568 | 보은 법주사 | |
| 1568 | 은진 쌍계사 | | |
| 1570 | 능성 쌍봉사 | | |
| 1575 | 해남 금강사 | | |
| 1584 | 서산 개심사 | | |
| 계 | | | 22 |

4.1.2 판심 분석

선장본은 매 책장마다 중앙을 접어서 장책을 하는데, 그 접힌 곳을 판심(版心)이라 한다. 그 판심을 반으로 접은 절선 부분의 양쪽에 물고기의 꼬리 모양이 표시된 것을 어미(魚尾)라 한다. 또한 어미와 광곽 사이에 검은 선이 있는 것을 흑구(黑口)라고 이른다. 다음의 〈표 3〉은 판심이 없는 불갑사본과 1466년 판본을 제외한 20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흑구와 어미를 중심으로 판심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이상 판심이 없는 2종을 제외한 현존본 『육도보설』 판본 20종 중 흑구가 있는 판본은 10종으로 모두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와 함께

나타난다. 이 10종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불교 전적에 있어서 흑구는 고려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려 말기부터 조선 전기에 내향흑어미와 한쌍이 되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천혜봉 2006, 578-580), 이러한 변화 양상을 『육도보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의 4종은 흑구가 없고 내향흑어미만 있는 판본이고, 3종은 내향흑어미와 무어미(無魚尾)가 섞여서 나타난다. 그리고 2종은 무어미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1종이 유일하게 화문어미(花紋魚尾)로 이것은 연대가 가장 늦은 1584년 개심사본이다. 이러한 판심의 변화 현상을 통해 조

〈표 3〉 현존본 『육도보설』의 판심 분석

| 구분 | 간행연도 | 간행지 | 종수 |
|-------------|------|---------|----|
| 흑구: 내향흑어미 | 1497 | 진안 현암 | 10 |
| | 1521 | 양구 상암 | |
| | 1522 | 홍산 무량사 | |
| | 1536 | 하동 신흥사 | |
| | 1537 | 홍덕 수월사 | |
| | 1539 | 안동 광흥사 | |
| | 1541 | 안변 석왕사 | |
| | 1555 | 천안 광덕사 | |
| | 1568 | 보은 법주사 | |
| | 1568 | 은진 쌍계사 | |
| 내향흑어미 | 1489 | 발행 미상 | 4 |
| | 1567 | 순창 취암사 | |
| | 1570 | 능성 쌍봉사 | |
| | 1575 | 해남 금강사 | |
| 내향흑어미 · 무어미 | 1432 | 발행 미상 | 3 |
| | 1509 | 순천 대광사 | |
| | 1566 | 고산 안심사 | |
| 무어미 | 1490 | 서진 자비령사 | 2 |
| | 1565 | 여주 불회암 | |
| 화문어미 | 1584 | 서산 개심사 | 1 |
| 계 | | | 20 |

선 전기 판식의 특징인 흑구와 내향흑어미가 함께 사용된 형태가 『육도보설』에서도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계통 분석

조선시대에 개판되어 현존하는 『육도보설』 판본은 모두 22종으로, 이 중 6행 13자의 형식이 전체 22종 가운데 10종으로 반 정도를 차지하며 7종이 6행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수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나머지는 7행이 2종, 10행이 2종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종은 절첩

장 형태의 불갑사 소장본으로 25행 15자이다. 행수만 보면 전체 22종 중 16종이 6행으로 이것은 약 75%의 비중을 차지한다. 『육도보설』이 15세기에서 16세기에 주로 간행된 것을 보았을 때 6행이 15세기에서 16세기 전형(典型)임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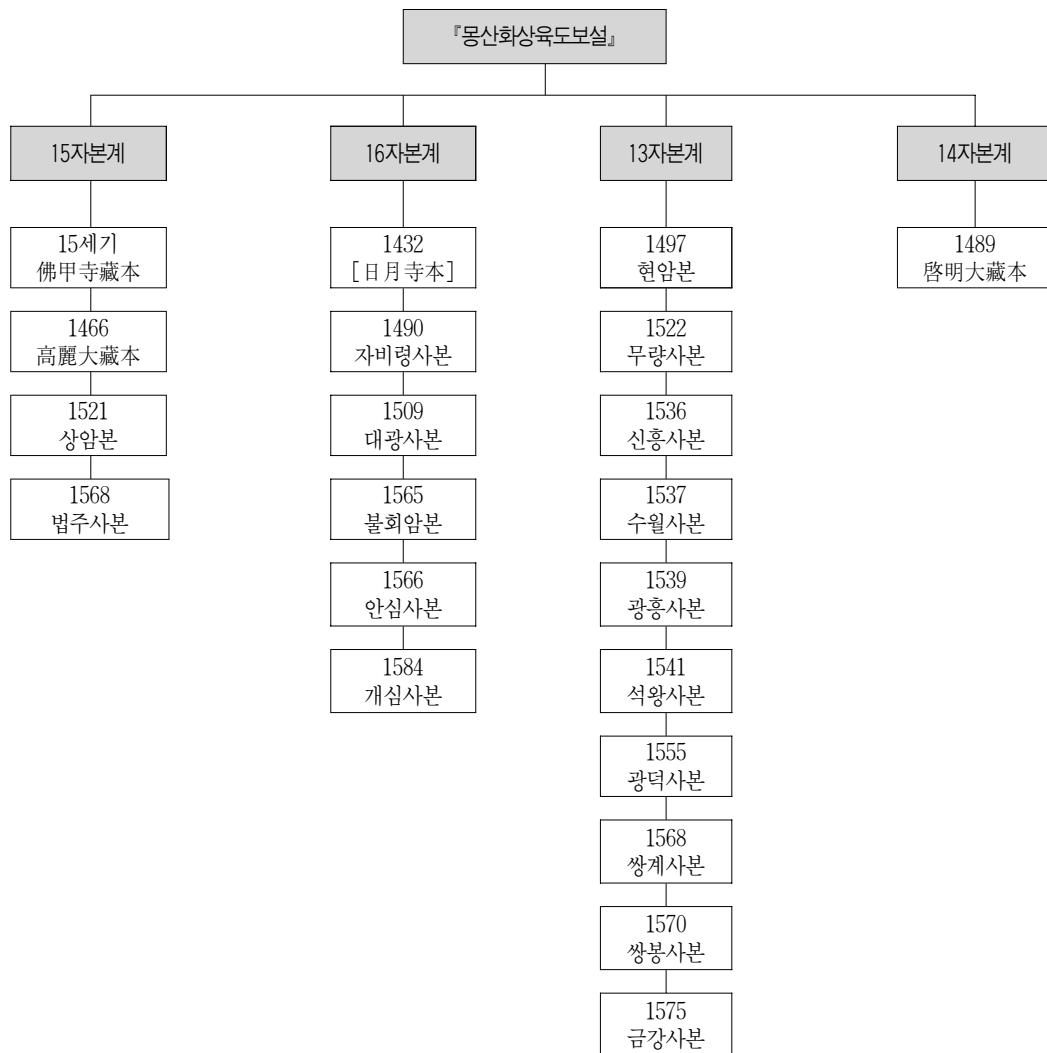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존 판본을 대상으로 계통 분석은 자수(字數)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각 판본의 첫 장의 권수제 다음 행에 내용이 시작되는 첫 행의 자수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⁴⁾ 계통 분석 결과 『육도보설』은 크게 15자본계, 16자본계, 13자본계, 14

4) 6행이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형태 분석을 위해서는 행수(行數)보다는 자수(字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았다.

자본계로 4가지 계통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5자본계는 4종의 판본, 16자본계는 6종의 판본, 13자본계는 10종의 판본, 14자본계는 1종의 판본으로 분류되어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⁵⁾ 13자본계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해 15세기에서 16세기의 행격(行格)

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계통의 판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관계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이상 언해본 1종을 제외한 현존 『육도보설』 21종의 계통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현존본 『몽산화상육도보설』 판본의 계통도

5) 계통 분석은 언해본을 제외한 21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2.1 15자본계

15자본계로 분류되는 판본은 4종으로 절첩장 형태의 15세기 불갑사 소장본, 1466년 고려대학교 소장본, 1521년 상암본, 1568년 범주사본이다. 가장 시기가 앞선 불갑사 소장본을 15자본계 대표 판본으로 정하고 나머지 3종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불갑사 소장본은 15자본계의 모본(母本)이 되는 판본으로 장책 형태가 절첩장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간행된 판본이다. 변란은 상하단변이며 계선이 없고 한 장에 25행 15자의 형태로 간행되었다. 여덟 번째 장 10행까지 현존하고 그 나머지는 소실된 상태이다. 간행기록이 없지만 서체를 살펴보면 ‘정(正)’자(字)가 ‘심(心)’자와 비슷한 형태로 인쇄되어 있고 ‘명(明)’자 대부분이 ‘目+月’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연대가 다소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의 뒷부분에 ‘덕이연기(德異緣記)’ 등의 필사 형태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차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판본은 현재 보물 147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15자본계 모본이 되는 판본인 불갑사 소장본과 함께 15자본계에 속하는 1466년 판본은 현재 고려대에 소장되어 있으며, 불갑사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에 해당된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선장의 형태로 사주단변으로 계선이 없고 한 면이 10행 15자이며 판심이 없다. 마지막 장에 서사(書寫) 연대와 참여자 4

명의 기록이 있고,⁶⁾ 다음 장에 금속활자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붙어 있다.⁷⁾ 이 발문을 통해 성화(成化) 2년(1466) 처음 간행한 판본을 6년 후인 성화(成化) 8년(1472) 인수대비(仁粹大妃) 발원으로 다시 인출한 후 뒤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인 김수온의 발문(跋文)을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466년본을 저본으로 복각된 1521년도술산 상암에서 간행된 판본이 현전하고 있다. 이 판본은 제주도 한라산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남국선원(南國禪院)에만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본의 특성상 저본인 1466년 판본과 판심이 보이고 있어 크게 구분된 점이다. 판심의 위아래에 흑구와 내향흑어미가 쌍으로 있고 상어미(上魚尾) 바로 아래에 판심제 ‘보(普)’가 있다. 간행기록을 보면 ‘正德十七年辛巳孟春江原道楊口地兜率山上菴開板’으로 정덕17(1521)년 강원도 양구의 도술산 상암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사, 간수(刊手), 시주, 화주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동일계통으로 1568년에 충청도 속리산 범주사에서 간행된 판본이 보이고 있다. 범주사본은 상암본과 같이 흑구와 내향흑어미가 쌍으로 있고 상판심제 ‘보(普)’가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인천수행초록(人天修行抄錄)’이라는 제명 하에 별도의 내용이 있고 마지막 행에 간행기록이 나타난다. 간행기록 ‘隆慶二年戊辰七月日忠清道報恩地俗離山法住寺開板’을 보

6) 成化二年丙戌二月日書 李若/刻大禪師海文/化主禪師義玄/功德主 自非氏.

7) 仁粹王妃殿下之至願 至誠於是乎周矣 恩重經十件 又別爲先考左議政西原府院君諡襄節公韓確 先考妃安城府夫人洪氏 悟無生登彼岸之願之所成 讀此經者 其可徒曰 此經乃仁粹王妃殿下之法施 而仁粹王妃殿下所以爲 上爲親深誠大願之所在 其可不知也哉 成化八年夏六月初吉 純誠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永山府院君臣 金守溫謹跋.

면 용경 2년 즉 1568년 충청도 보은 속리산 범주사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간행참여자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15자본계는 불갑사본을 모본으로 여러 차례 복각 또는 번각되면서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 판본 계통이다. 15자본은 모두 4종으로 1종은 절첩장이며, 3종은 선장본의 형태로 되어 있다. 선장본 3종 중 비교적 개관 시기가 늦은 2종에 흑구와 내향흑어미가 쌍으로 있고 판심제 '보(普)'가 나타난다. 상암본을 제외하고 모두 권수제가 첫 행의 첫 번째 글자 자리부터 나타난다.

4.2.2 16자본계

16자본계로 분류되는 판본은 1432년본, 1490년 자비령사본, 1509년 대광사본, 1565년 불회암본, 1566년 안심사본, 1584년 개심사본 등 모두 6종이 이에 해당된다. 16자본의 모본으로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1432년에 일월사에서 개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월사본에는 보판이 혼재되어 있어 후쇄하면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1432년본은 동국대학교 도서관,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변란과 계선은 보림사본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책내에서 책판(冊版) 크기와 행자수(行字數)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몇 개의 판이 혼합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6행 14자, 7행 13자, 계선이 있는 7행 13자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판심은 대체로 보림사본과 동일하며 종종 내향흑어미가 나타난다. 마지막 장에 간행기록이 있으나 일부분이 지워져 정확한 간행지, 간행처는 알 수 없고 간행연대만 선덕(宣德) 7년(1432) 또는 6년(1431)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소장처인 규장각과 동국대 도서관의 목록에는 7년(1432)으로 표기하고 있다. 간행기록 뒷부분에는 참여자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현전하는 16자본 중 가장 최선본으로는 1490년에 황해도 자비령사에서 개관된 판본이다. 자비령사본은 현재 보림사(寶林寺)와 보성선원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시주단번으로 계선이 없고 판심은 있으나 흑구, 어미, 판심제는 없으며 장수(張數)만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 장의 간행기록을 보면 '弘治三年七月日 黃海道 瑞眞地慈悲嶺寺開板'으로 나와 있으며 홍치3년 즉 1490년에 황해도 서진의 자비령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사(書寫), 각수(刻手), 목수(木手), 연화(緣化), 시주(施主)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특히 권말의 간기와 나란히 '殊菴書'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로 보아 수암이 일월사본을 저본으로 쓴 판하본을 바탕으로 판각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수암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다만 조선 초기의 육경합부 판본에도 이름이 보이고 있어 명필가로 여러 종의 불서의 판하본을 쓴 스님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비령사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1509년 대광사본은 원각사(圓覺寺), 보림사,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판심은 일부분이 내향흑어미가 보이는 일월사본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간행기록으로 '正德四年己巳九月日 全羅道順天府母後山大光寺刊板'을 보면 정덕4(1509)년에 전라도 순천 모후산 대광사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에 대한 기록으로 시주자, 화주의 목록이 나타난다. 현전본 3점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만 필사 형

태의 서문(序文)이 『육도보설』 앞에 있고 뒤에는 ‘사성육범합위십법계석(四聖六凡合爲十法界釋)’이 필사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1565년 석두사본은 자비령사본과 같이 판심 부분은 있으나 후구, 어미, 판심제는 없고 장수만 표시되어 있다. 김민영 소장본을 보면 내용이 끝나고 3번째 페이지의 후발(後發)에 간행 기록이 나타난다. 간행기록 ‘嘉靖四十四年乙丑秋高達山佛會庵開刊 黃海道兎山地板致於鶴鳳山石頭寺留置’을 통해 고달산 불회암에서 간행하여 석두사에 유치해 놓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주, 각자(刻字), 화사(化士)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안심사본은 자비령사본과 석두사본과 같은 판심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역시 이를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에 해당된다. 간행기록 ‘嘉靖四十五年丙寅八月日全羅道高山地兜率山安心寺留板’을 통해 가정45(1566)년 전라도 고산의 도솔산에 있는 안심사에 판을 보관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각수, 화사, 시주에 대한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개심사본은 판심을 보면 후구와 판심제는 없고 유일하게 화문어미가 나타난다. 마지막 장의 간행기록 ‘萬曆十二年九月日忠清道瑞山地伽倻山開心寺新開板’을 통해 1584년 충청도 서산의 가야산 개심사에서 간행했음이 확인된다. 판의 인쇄상태를 보면 흐리고, 진하기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분에는 다른 판이 인쇄된 자국이 남아있다.

이처럼 16자본계는 대체로 판심은 있으나 후구, 어미가 없으며 장수만 나타난다. 또한 모두 권수제가 첫 행의 두 번째 자(字) 자리부터 나타난다. 판이 혼합된 1432년본과 판심에 장수

만 나타나는 자비령사본, 석두사본, 안심사본, 대광사본 그리고 화문어미가 나타나는 개심사본 3가지로 세부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2.3 13자본계

13자본계로 분류되는 판본은 10종으로 4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13자본계에는 1497년 현암본, 1522 무량사본, 1536년 신흥사본, 1537년 수월사본, 1539년 광흥사본, 1541년 석왕사본, 1555년 광덕사본, 1568년 쌍계사본, 1570년 쌍봉사본, 1575년 금강사본이 현존하고 있다.

모본은 1497년에 전라도 진안의 용출산 현암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이 판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고대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판본의 특징은 사주단변으로 계선이 없고 『육도보설』의 가장 주류를 이루는 6행 13자의 전형적인 판본이다. 후구와 내향후어미가 쌍으로 나타나고 판심제(版心題) ‘보(普)’가 있다. 마지막 장에 ‘弘治十年八月日全羅道鎮安地聳出山懸庵開板’의 간행기록이 있으며 이것으로 홍치10(1497)년 전라도 진안 용출산 현암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뒤에는 많은 시주자의 목록이 나타나며 끝 부분에 각수, 공양주(供養主), 연판(鍊板), 화주(化主)의 참여자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현암본을 복각한 1522년 무량사본은 현재 관문사, 보림사,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개인 소장의 5곳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판심은 현암본과 같으며 권수제(卷首題) 부분과 간기가 있는 마지막 장만 계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동일계통임이 확인된다. 간행기록을 보면

‘嘉靖元年壬午四月日刊板于 忠清道鴻山縣 萬壽山無量寺留’로 가정1(1522)년에 충청도 홍산 만수산 무량사에서 간행하고 목판을 그곳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간행기록 뒤에 시주, 각수, 공양주, 화납(化納)에 대한 정보가 이어진다.

그리고 신흥사본은 계선이 있는 판본 2종 중 하나이다.⁸⁾ 판식 상 행자수와 판심은 현암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역시 상기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이다. 동국대 도서관 소장 신흥사본은 간행기록의 내용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정확한 간행기록은 서지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간행기록을 보면 ‘嘉靖十五年丙申六月日智異山神興寺開板’으로 가정15(1536)년에 지리산 신흥사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537년 수월사본은 마지막 장의 간기 부분에만 계선이 보인다. 판식의 행자수와 판심은 현암본과 동일하며 마지막 장에 간행기록 ‘嘉靖十六年十月日全羅道興德地逍遙山水月寺重刊板’이 나타난다. 간기를 통해 이 책은 1537년 전라도 흥덕 소요산 수월사에서 다시 중간(重刊)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장 아래 부분에 참여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그런데 광흥사본은 선행의 판본에 비해 자체가 좀 더 굵직한 점이 특이한데, 과연 간기면에 ‘書寫黃石孫’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다. 과연 이 판본은 상기 판본을 저본으로 황석손이 새로 판하본을 써서 판각한 판본에 해당된다. 따라서 광흥사본은 변란, 계선, 판심, 행자수가 현암본과 동일하나, 다른 판본에 비하여 자체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 주목되는 특징이다. 간행기록을 보면 ‘嘉靖十八年己亥二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으로 가정18(1539)년에 경상도 안동의 하가산 광흥사에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표제명(表題名)이 소장처에 따라 ‘육도보설(六道普說)’,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몽산설(蒙山說)’, ‘보설(普說)’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석왕사본은 광흥사본을 저본으로 1541년에 함경도 안변의 설봉산 석왕사에서 복각한 판본에 해당된다. 현재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판식이 대체로 현암본과 동일하나 다만 판심제로 ‘보설(普說)’와 ‘보(普)’ 2종류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행기록은 시주자와 각수, 화주의 목록과 함께 그 뒤에 ‘嘉靖二十年辛丑三月日咸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板’이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20(1541)년에 함경도 안변의 설봉산 석왕사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55년에 천안의 광덕사에서 개판된 판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만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변란, 행자수, 판심은 현암본과 동일하나 계선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간행기록은 마지막 장에 시주, 공양주, 연판, 각수, 화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행에 ‘嘉靖三十四年七月日天安廣德寺開板’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간기를 통해 가정34(1555)년에 천안 광덕사에서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쌍계사본은 광흥사본 이전에 간행된 판본을

8) 신흥사본은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울산 중구의 화엄선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화엄선원 소장본은 화봉문고에 있던 것으로 소장처 조사 중에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본으로 1568년에 충청도 은진의 불명산 쌍계사에서 개판된 판본으로 보인다. 현재 이 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서만 소장하고 있는데, 판식을 보면 변란, 계선, 행자수, 판심 모두 현암본과 동일하여 복각한 판본임이 확인된다. 마지막 장의 간행기록 '隆慶二年十二月日忠淸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을 통해 1568년 충청도 은진의 불명산 쌍계사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시주, 연판, 각수, 화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중연본에는 간행처 부분이 지워져 있고 그 위에 종이를 덧대어 '계룡산(溪龍山) 갑사(甲寺)'라고 목서해 놓은 것이 보이고 있다.

쌍봉사본은 여러 차례의 복각 과정을 거치면서 후기 판본에서 보이는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판본은 비록 후대의 판본이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암본과 거의 동일하나 흑구가 없고 자체가 해서체로 변화된 점이 다르다. 간행기록 '隆慶四年庚午夏孟月全羅道綾城地雙峰寺開板'을 보면 융경4(1570)년에 전라도 능성의 쌍봉사에서 간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뒤에 참여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끝으로 금강사본은 상기의 쌍봉사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동일계통의 판본에 해당된다. 현재 금강사본은 보림사의 사천왕상에서 수습된 것이 유일하며, 판식은 모두 쌍봉사본과 동일하다. 다만中间的 4장이 필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진 부분을 보충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권말의 간기면에 보이는 간행기록 '萬曆三年乙亥十月日全羅道海南地金剛寺開板'을 통해 만력3(1575)년에 전라도 해남의

금강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뒤에 시주, 각수, 화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금강사본은 각종의 목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판본으로 실물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13자본계통은 현암본을 모본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10여 차례 복각 또는 번각된 일련의 판본에 해당된다.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계선이 없고 흑구와 내향흑어미가 쌍으로 나타나며 판심제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권수제는 석왕사본과 광덕사본만 첫행의 2번째 자(字)에서 시작하며 나머지는 첫행의 첫 자(字)부터 권수제가 나타난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부 분류를 하면 현암본계 내에서 흑구가 없는 쌍봉사본과 계선이 있는 광덕사본이 각각 구분될 수 있다.

4.2.4 14자본계

14자본계 판본은 1489년에 개판된 판본 1종만 현존하고 있다. 간행처는 미상이나 권말에 간행에 관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판본은 현재 계명대 도서관과 공인박물관 2곳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공인박물관 소장본은 앞부분 10장 정도가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계선은 없고 행자수는 7행 14자로 일정하다. 판심을 보면 흑구는 없고 내향흑어미만 나타나고 판심제는 없다. 서체가 단정하지 않으며 마지막 장의 기록을 보면 승려나 일반 개인에 의해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말의 발문을 보면, 弘治己酉인 1489년에 글자가 희미해지고 판이 희귀해져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행(性行)이 이를 보고 참지 못해 판을 새기고 인출하여 널리 유통시켰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⁹⁾ 비록 간기

가 없어 정확한 간행사항은 파악할 수 없지만, 간행 경위(經緯)와 개판 연대는 알 수 있다. 판식을 살펴보면 판심은 상하의 후구는 없으며 내향후어미만 나타나고 행자수는 7행 14자로 일정하다. 권수제는 첫 행의 3번째 자(字)에서 시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존하는 14자본계 판본으로는 1489년의 발문이 있는 판본이 유일하다. 따라서 일정한 계통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독자적 판본으로 보인다.

4.3 시기 및 지역 분석

시기 및 지역 분석은 간행 활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은 『육도보설』 판본 22종의 간행 시기와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표 4>로 나타낸 것이다.

현존 『육도보설』은 1640년에 간행된 천관사본 1종을 제외하면 모두 임진왜란 이전, 15세기에 16세기에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기별로 살펴보면 15세기 간본이 6종이며, 16세기 간본이 16종으로 간행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로 갈수록 그 종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전체 종수가 적고, 이른 시기의 자료는 드물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측면에서는 사찰에서의 『육도보설』 간행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다.

또한 간행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사찰에서 절반 이상이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간행된 판본이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것을 통해 국가 주도로 장려하여 간행한 것이 아닌 민간의 사찰들이 자발적으로 간행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전라도와 충청도를 제외한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 경상도 등의 판본 존재를 통해 『육도보설』의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본다.

<표 4> 현존본 『육도보설』의 시기 및 지역 분석¹⁰⁾

| 지역 \ 시기 | 15세기 | | 16세기 | | 계 |
|---------|-----------|-----------|-----------|-------------------|----|
| | 전반 | 후반 | 전반 | 후반 | |
| 강원 | 0 | 0 | 1(15) | 0 | 1 |
| 경상 | 0 | 0 | 2(13, 13) | 0 | 2 |
| 전라 | 0 | 1(13) | 2(16, 13) | 5(16, 16, 13, 13) | 8 |
| 충청 | 0 | 0 | 1(13) | 4(13, 15, 13, 16) | 5 |
| 함경 | 0 | 0 | 1(13) | 0 | 1 |
| 황해 | 0 | 1(16) | 0 | 0 | 1 |
| 미상 | 2(15, 16) | 2(15, 14) | 0 | 0 | 4 |
| 계 | 2 | 4 | 7 | 9 | 22 |

9) 夫此冊之爲華普說爲名 昔蒙山爲之未悟者 分別十法界 細詳直指 是故求道者 皆欲無不習也 或體微或板稀 故孜者病焉 今貧道性行者 不勝感限 彫板印出 以施無窮者 弘治己酉夏四月日。
 10) 숫자는 종수를 나타내며 괄호안의 숫자는 자수(字數)를 표기하여 해당 지역, 시기의 종수와 계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육도보설』은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사찰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라도에 소재하는 사찰에서 많은 종수가 개판되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몽산이 전수한 임제선의 풍조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전기 선사상의 유행은 간경도감에서의 불경 언해서들이 대체로 대승경전류(大乘經典類)와 선서류(禪書類)로 나뉘는데 이들은 한국불교 사상 형성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경전이거나 강원(講院)의 선수행(禪修行) 지침서 역할을 한 경전들이라는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으며(김무봉 1996, 83-84), 조선시대 지리산 소재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들을 보면 조선 전기에는 경전류(經典類) 및 선서(禪書)의 간행이 활발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박민희 2009, 61).

5. 결 론

이 글은 중국의 송·원대 임제종 양기파의 승려인 몽산 덕이의 저술 『육도보설』의 간행 현황을 파악하고 현존하는 판본을 분석한 것이다.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간행한 판본은 모두 22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판본의 형태적 특징과 자수를 기본으로 한 계통 분석, 마지막으로 시기 및 지역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에는 현재 『몽산화상보설』이 북경 대학교에 4권 1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육도보설』은 현전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재편한 불서로 보인다. 그리하여 간행 현황

을 조사한 결과 『육도보설』은 언해본 1종을 포함하여 모두 22종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판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려말선초에 개판된 불갑사 소장본으로 절첩장의 형태이고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1584년 개심사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현존본 22종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 시기인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간행된 것이다. 이는 『육도보설』이 고려시대 전래된 이후 조선 전기까지 활발히 간행되어 당시 조선 불교계의 선사상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 전기에 불교 부흥의 일환으로 이 시기에 집중 간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이 책은 인과응보의 내용을 강조한 서적으로 스님들의 수행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사찰에서 활발하게 간행 유통시켰던 것이다.

셋째, 변란과 판심을 기준으로한 형태 분석 결과, 절첩장 형태의 불갑사 소장본은 상하단변이고 나머지 판본은 모두 사주단변이었다. 이것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란 또한 변화된 것으로 초기 판본은 려말 선초에 개판되어 변란이 상하단변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 판본은 사주단변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판심은 20종 가운데 10종이 흑구와 내향흑어미 형태로 나타났고, 나머지 판본들은 내향흑어미와 무어미가 혼합되거나 무어미만 나타났다. 또한 화문어미 1종도 있었다. 흑구와 내향흑어미가 쌍으로 나타나는 판식은 조선 전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육도보설』 또한 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언해본을 제외한 21종을 자수를 기준

으로 계통을 분석 결과, 대체로 15자계본, 16자계본, 13자계본 등의 3계통으로 나눌 수 있으며, 14자본은 1종만 발견되어 판본 상 계통을 형성하지 못한 독자 판본이다. 각 계통의 판본은 각각 4종, 6종, 10종으로 분석되어 13자계본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몽산 덕이의 저술 『육도보설』은 고려시대 전래되어 조선 전기 활발히 간행되었고

현재 22종이 현존하고 있다. 이 책은 몽산의 여러 보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편찬한 것으로 그의 다른 저술과 함께 조선 전기에 불교계에 널리 유통되어 서산대사의 삼교 사상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몽산 덕이의 다른 저술에 대해서도 판본학 검토가 수행되어 이를 통해 그의 사상과 저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주진. 1969. 『韓國古書年表資料』. 서울: 國會圖書館.
- [2] 강호선. 2011. 『高麗末 懶翁慧勤 研究』.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 [3] 계명대학교중앙도서관. 1987. 『古書目錄』. 대구: 계명대학교중앙도서관.
- [4] 국립중앙도서관. 1970-. 『古書目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5] 국립중앙도서관. 2006.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online]. [cited 2011.6.20].
 <<http://www.nl.go.kr/korcis/>>.
- [6] 김무봉. 1996. 朝鮮 前期의 佛經 諺解 사업. 『佛敎語文論集』, 1: 73-87.
- [7] 김방룡. 2005. 여말 三師(태고보우·나옹혜근·백운경한)의 간화선 사상과 그 성격. 『보조사상』, 23: 179-223.
- [8] 김영태. 1992. 『佛敎思想史論』. 서울: 民族史.
- [9] 김형록. 1999. 『蒙山德異의 禪思想 研究』.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 [10] 남권희. 1991. 『蒙山和尚六道普說』 諺解本の 書誌的 考察. 『語文論叢』, 25: 63-74.
- [11] 남권희. 1994. 蒙山 德異와 高麗 人物들과의 交流 -筆寫本 『諸經撮要』의 수록내용을 중심으로-. 『圖書館學論集』, 21: 363-399.
- [1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편찬위원회. 2006. 『古書目錄』. 서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편찬위원회.
- [13]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008.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online]. [cited 2011.7.8].
 <<http://buddha.dongguk.edu/>>.
- [14] 민영규. 1989. 『蒙山德異와 高麗佛敎. 六祖壇經의 世界』. 서울: 民族社, 11-19.

- [15] 박민희. 2009.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刊行 佛書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6] 박상국. 1987.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 [17] 서윤길. 1994. 高麗 臨濟禪法의 受容과 展開. 『보조사상』, 8: 9-45.
- [18]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1979-. 『古書目錄』. 서울: 成均館大學校 東아시아學術院 尊經閣.
- [19] 손성필. 2007. 『16世紀 朝鮮의 佛書 刊行』.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20] 송일기 외. 2007. 『김민영 소장 古書目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21] 아세아문화사. 1972. 『朝鮮古書目錄』. 성남: 亞細亞文化史.
- [22] 안동대학교 도서관. 19-. 『고서목록』. 안동: 안동대학교 도서관.
- [23]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1977-. 『古書目錄』. 서울: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 [24]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2001. 『古書目錄』. 대구: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 [25] 윤병태. 1972.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26] 이원숙. 2009. 休休庵 坐禪文에 관한 연구. 『韓國禪學』, 23: 193-222.
- [27] 인경. 2009.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 사상 연구』.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 [28] 장원규. 1976. 『中國佛教史』. 서울: 동국역경원, 204-206.
- [29] 전남대학교 도서관. 1990. 『古書目錄』. 광주: 全南大學校 圖書館.
- [30] 정병삼. 2007. 몽산 저술의 간행과 16세기 조선불교. 『불교학연구』, 18: 119-147.
- [31] 정은영. 2005. 『몽산 화상 육도 보설』 이본의 입겂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32] 정형우, 윤병태. 1979. 『韓國册板目錄總覽』.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33] 조명제. 2005. 고려말 元代 看話禪의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蒙山, 高峰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23: 138-179.
- [34] 진성규. 2005. 李承休의 佛教觀. 『震檀學報』, 99: 211-231.
- [35] 천혜봉. 1991. 朝鮮前期佛書版本. 『書誌學報』, 5: 3-43.
- [36] 천혜봉. 2006.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 [37] 최동원. 2008. 『朝鮮時代に 刊行된 『禪源諸詮集都序』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38] 최연식, 강호선. 2003. 『蒙山和尚普說』에 나타난 蒙山의 行적과 高麗後期 佛教界와의 관계. 『보조사상』, 19: 163-206.
- [39]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993. 『古書目錄』. 대전: 충남대학교 도서관.
- [40] 한국고전번역원. 2009. 한국고전종합DB. [online]. [cited 2011.7.8].
-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online]. [cited 2011.7.8].
 <<http://www.encykorea.com/>>.

- [42] 한국출판무역. 2000. 古書通信. 16: 28.
- [43] 한기두. 1985. 休休庵坐禪文 研究. 韓國文化와 圓佛敎思想. 615.
- [44] 한지희. 2009. 『竹菴 編纂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45] 허홍식. 1994.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 [46] 허홍식. 2008.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파주: 창비.
- [47] 황인규. 2004. 조선전기 불교계 고승과 목우자 선풍 -조계종 법통상의 고승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21: 50.
- [48] 흑전량. 1972. 『朝鮮舊書考』. 성남: 亞細亞文化史.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Joo Jin. 1969. *Korean Old Books Chronology Reference*.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 [2] Kang, Ho Sun. 2011. *A Study on Son Monk Naong-Hyegeun in the Late Goryeo Dynasty*. Ph.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 [3] Keimyung University Library. 1987. *A Catalog of Old Books*. Daegu: Keimyung University Library.
- [4]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1970-. *A Catalog of Old Books*.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5]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6.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online]. [cited 2011.6.20]. <<http://www.nl.go.kr/korcis/>>.
- [6] Kim, Mu Bong. 1996. "Bulkyoung Eonhae project of the early of Joseon Dynasty." *Bulkyo Eomun Nonjib*, 1: 73-87.
- [7] Kim, Bang-Ryong. 2005. "The thought and the characteristics of Ganhwa-seon(看話禪) of three Zen masters, Taego-Bowoo, Naong-Hyeageun and in the end of Koryo." *Bojosasang*, 23: 179-223.
- [8] Kim, Young-tae. 1992. *Buddhism Ideal History Theory(佛敎思想史論)*. Seoul: Minjoksa.
- [9] Kim, Hyung-Rok. 1999. *Meng-Shan Te-I(蒙山德異)'s Thought of Seon(禪)*. Ph.D dis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 [10] Nam, Kwon-Heui. 1991. "A bibliographical study of 『Liudao Pushuo of Mengshan』." *Eomunlonchong*, 25(1): 63-74.
- [11] Nam, Kwon-Heui. 1994. "A bibliographical study of 『Jae Kyung Chwal Yo: 諸經撮要』 and

- the exchange of Mongsan(蒙山) and the elite class of Koryo Buddhis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1: 363-399.
- [12] Dongguk University Library Compilation Committee of Catalog of Old Books. 2006. *Collection of Oriental Classics*. Seoul: Dongguk University Library.
- [13] Dongguk University Library. 2008. Informations for Korean Buddhist Culture. [online]. [cited 2011.7.8]. <<http://buddha.dongguk.edu/>>.
- [14] Min, Young Gyu. 1989. *Meng-Shan Te-I(蒙山德異) and Goryeo(高麗) Buddhism. World of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六朝壇經)*. Seoul: Minjoksa.
- [15] Park, Minhee. 2009. *A Study on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Temples of Jirisan in Joseon Dynasty*.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16] Park, Sang Guk. 1987. *The Woodblocks of Korean Temples*. Seoul: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 [17] Seo, Yoon Gil. 1994. “The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Goryeo(高麗) *Linji Seon*(臨濟禪法).” *Bojosasang*, 8: 9-45.
- [18] Sungkyunkwan University Library. 1979-. *A Catalog of Old Books*, Sungkyunkwan University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 [19] Son, Seong Pil. 2007. *The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in 16th Century Chosun*.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 [20] Song, Il-Gie et al. 2007. *A Catalog of Kim Min young’s Old Books*.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21] Asia Cultural Company. 1972. *Catalog of Joseon(朝鮮)’s Old Books*. Seongnam: Asia Cultural Company.
- [22] Andong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 *A Catalog of Old Books*. Ando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23] Yonsei University Library. 1977-. *A Catalog of Old Books*. Seoul: Yonsei University Library.
- [24] Yeungnam University Library. 2001. *A Catalog of Old Books*. Daegu: Yeungnam University Library.
- [25] Youn, Byong Tai. 1972. *Korea Bibliography Chronology Tabl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6] Lee, Won-Sook. 2009. “A study on ‘The Xiuxiu Yan Discourse on Za-Zen’.” *Journal of Korean Seon Studies*, 23: 193-222.
- [27] Inkyung. 2009. *Study on Mengshan(蒙山) De-yi(德異) and the Thought of Ganhwa-seon(看話禪) in the End of Goryeo(高麗)*. Seoul: Meditation Counseling Research Institute.
- [28] Jang, Won Kyu. 1976. *Chinese Buddhism History*. Seoul: The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of Dongguk University.

- [29]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90. *A Catalog of Old Book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30] Jung, Byung-Sam. 2007. "Publication of the works of Mengshan and the Buddhism of Joseon in 16th century." *Journal of Buddhist Studies*, 18: 119-147.
- [31] Jung, Eun Young. 2005. *A Comparative Study on Ipgyeoch in Different Versions of Mongsan Hwasang Yukdo Boseol*. M.A.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32] Chong, Hyong woo, & Youn, Byong Tai. 1979. *The Complete Woodblocks Catalog of Korea*.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33] Cho, Myeng Je. 2005. "Acceptance of KouanZen of the Yuan dynasty at the end of Goryeo and its ideological influence: Laying stress on Mongsan(蒙山) and Gobong(高峰)." *Bojosasang*, 23: 138-179.
- [34] Jin, Sung Kyu. 2005. "Perspectives on Buddhism of Yi Sung-hyu." *The Chin-Tan Society*, 99: 211-231.
- [35] Chon, Hye Bong. 1991. "A study on buddhist woodblocks of the early of Joseon Dynasty." *Seojihakbo*, 5: 3-43.
- [36] Chon, Hye Bong. 2006. *Korean Bibliography*. Seoul: Minumsa.
- [37] Choi, Dong-won. 2008. *A Biblical Study on 『Seon Won Je Jeonjip Doseo』 Published in Joseon Dynasty*.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38] Choe, Yeon-Shik, & Kang, Ho-Sun. 2003. "A study on Mengshan De-yi's activity and his relation with the Korean Buddhism in late 13th century shown in Mengshan heshang pushuo." *Bojosasang*, 19: 163-206.
- [39]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93. *A Catalog of Old Books*.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40]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009. DB of Korean classics. [online]. [cited 2011.7.8].
- [4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0.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nline]. [cited 2011.7.8]. <<http://www.encykorea.com/>>.
- [42] Korean Publication Trade. 2000. *Communication of Old Books*(古書通信), 16: 28.
- [43] Han, Ki doo. 1985. "A study on *The Xiuxiu Yan Discourse on Za-Zen*." *Korean Culture and Wonbuddhist Thought*(韓國文化와 圓佛敎思想), 615.
- [44] Han, Ji Hee. 2009. *A Study on Chonji Myongyang Suryuk Chaewi Chanyo*.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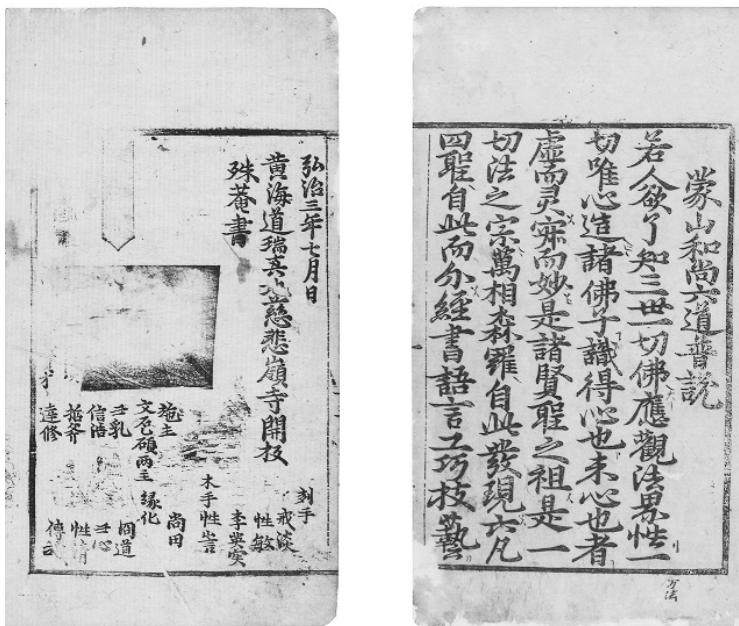
- [45] Heo, Heung Sik. 1994. *A Study on Buddhist History of the Middle Ages of Korea*. Seoul: Ilchokak.
- [46] Heo, Heung Sik. 2008. *The Light of Xiuxiu Yan Left in Goryeo(高麗)*. Paju: Changbi.
- [47] Hwang, In-Gyu. 2004. "The influence of Bojo's Seon thought on Buddhist masters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Bojosasang*, 21: 50.
- [48] Heuk Jeon Ryoung(黑田亮). 1972. *A Study on Joseon(朝鮮)'s Old Books*. Seongnam: Asia Cultural Company.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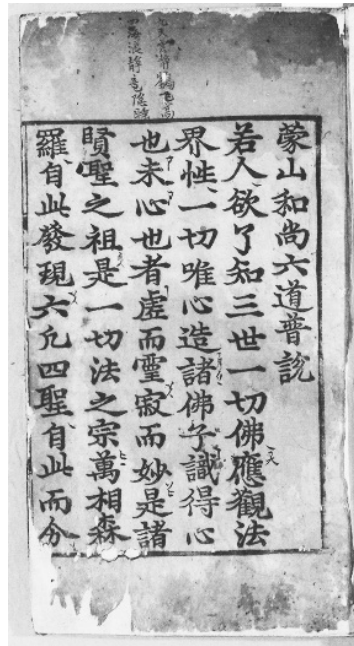
1. 15세기 佛甲寺藏本



2. 1490년 慈悲嶺寺本



3. 1497년 懸庵本



4. 1489년 啓明大藏本

